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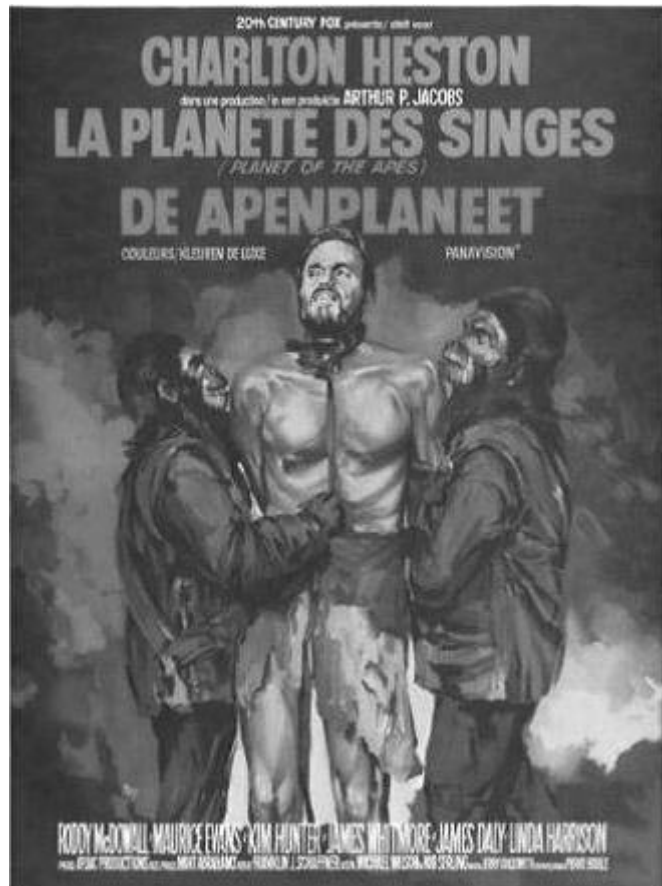


## 멸망한 지구와의 슬픈 만남 - 혹성 탈출

1968년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못살고 볼거리도 없을 때 유명 배우 찰튼 헤스톤이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큰 재미를 안겨준 영화가 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운항중 불시착한 미지의 혹성에서 원숭이들에게 잡혀 조롱당하는, 당시로서는 이색적인 소재의 「혹성탈출(Planet of the apes)」이 그것이다.

주인공인 테일러 등 3명은 그들이 승선한 우주선 이카루스 호에서 깊은 인공 동면에 빠져 있다. 우주선이 한 혹성의 호수에 추락하면서 이들은 깨어난다. 깨어난 시각은 서기 3978년. 우주선은 곧 침몰하고 3명의 승무원들은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서 물에 오른다.

그들은 걸어서 황폐한 사막을 건너고 오아시스를 발견한다. 목욕을 하는 동안 그들의 옷을 도둑맞는다. 도둑을 쫓다가 그들은 옥수수밭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원시 인류를 만난다.





승무원들과 그 원시 인류는 말은 탄 원숭이들의 공격을 받는데, 그 원숭이들은 인간들을 사냥하는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다. 그 싸움에서 동료 하나가 죽고 테일러와 랜던은 체포되어 원숭이들의 도시로 이송된다.

테일러는 목을 다쳐 원숭이 과학자들의 수술을 받는다. 그가 회복되면서 그들은 사냥에서 함께 잡힌 원시인류인 아름다운 여성 노바와 함께 우리에게 갇힌다. 테일러는 목의 상처 때문에 잠시 말을 못하게 된다. 그 사회는 언어를 사용하는 원숭이들이 통치하는데 이들은 고릴라 경찰과 군대와 노동자들의 3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오랑우당은 통치자이고 정치가이며 침팬지는 지식인들과 근로자들이다.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인류는 과학 실험 대상이나 사냥감

이 된다.

동료인 랜던은 원숭이들의 로봇 수술 실험 대상이 되고 먼저 희생된 흑인인 닷지는 이미 박제가 되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원숭이족인 지라와 그 약혼자인 코르벨리우스는 테일러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라가 그 원숭이나라 왕인 자이우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테일러는 그들의 주의를 끌려고 땅에 글을 쓴다. 자이우스는 그가 지능을 갖고 있음을 알아챈다. 테일러는 목소리를 회복하여 지라와 코르벨리우스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은 점차 테일러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테일러가 탈출하려다가 잡히자 자이우스는 그를 법정에 세운다. 자이우스는 테일러에게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하지 않으면 거세하고 로봇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한다. 지라와 코르벨리우스는 그를 빼내어 노바와 함께 탈출시키고 그들은 지질학자인 코르벨리우스가 일 년 전에 발견한 후 숨기고 있었던 ‘금지 구역’으로 달아난다. 자이우스가 추격해 와서 싸움이 일어나지만 결국 자이우스는 테일러와 노바가 말을 타고 떠나도록 허락해준다.

달아나는 그들... 테일러는 이 혹성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원숭이들이 지능을 갖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다. 한참을 달려간 해안에서





테일러는 마침내 해변 모래에 반쯤 파묻힌 자유의 여신상을 보게 된다. 영화사에서 길이 남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다.

우주선이 불시착한 이 혹성은 오래전 핵전쟁으로 멸망해 버렸던 바로 그 지구였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여행하여 결국 다시 지구로 돌아왔던 것이다. 인류는 스스로 문명을 파괴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 지구는 원숭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동서간 냉전 상황이었던 1968년 당시의 이 영화는, 핵전쟁이 지구의 파멸을 초래하고 이는 인류를 무지

로 내몰았으며 그리고 원숭이가 지구의 주인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동물원에서 창살에 갇힌 원숭이를 관람하듯이 이들 원숭이족들은 별거벗은 인간들을 창살에 가두고 들여다 본다. 이렇듯 전도된 상황은 당시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며 지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성경에서는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

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고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공상과학적인 요소 혹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주 여행 동안의 장기간 동면 문제, 우주 여행 결과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 굶어있는 우주 공간, 동면 기간 동안 노화의 정지, 우주선 속에서 천천히 흐르는 시간 등이 그것이다.

지구 현대 문명의 아이콘인 '자유의 여신상'... 혹성탈출 이후 영화 속에서는 지구 멸망의 상징으로 종종 파괴된 자유의 여신상이 등장한다. 영화 「투모로우」에서도



한파의 급습을 받아 자유의 여신상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해보면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거나 그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핵전쟁이 인류를 갑자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환경 파괴나 지구 온난화 같은, 혹은 혹성 충돌 같은 일들이 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도 어느 예기치 않은 순간에 국가 간 미움 때문에 혹은 어처구니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오작동으로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광기로 상호 대량 보복의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핵비확산과 핵실험금지조

약이 그리고 북핵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혹성탈출」, 이 영화는 핵무기로 인한 지구 문명의 멸망과 그 이후 인류의 세상에 대한 지배가 전도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연약한 혹성에서 살아가는 불안한 인류의 운명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냉전 상황은 종식되고 당시 공산진영이던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 그리고 중국까지 경제 발전에 나섬으로써 세계의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지구상에 핵무기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오작동에 의한 핵무기의 사용과 이로 인한 전면핵전의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sup>1)</sup>. 상대가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실수를 가장한 핵무기 발사가 있을 수 있고 선제 공격의 유혹도 있다. 핵무기를 장악한 군부의 정치적 모험으로 핵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테러리스

트들이 강대국간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영화는 또 종말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왜 인간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종말의 날짜를 정한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는 것인가? 그것은 현대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인간의 지식이 더 해질수록 불안의 요소는 더욱 늘어난다. 내가 타지 않은 비행기의 추락도 생생한 TV 뉴스로 보도되면 마치 내가 탑승하여 그 공포를 경험한 것과 같다. 이러한 시대에서 이러한 종말론적 사고는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다. 일을 하여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노후에 대하여 불안해할 필요도 없으며 학교에 들어가고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이 종말론적 사고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영화 「혹성탈출」 마지막 장면에서 평화로운 해변에 비스듬히 파묻혀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것은 상상력과 기술이 만들어낸 영상이지만, 이는 아직도 국가간 경쟁과 수많은 무기들로 둘러싸인 우리의 생존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핵무기에 의한 상호 동시 파괴... 그것은 앞으로도 인류에게는 서로를 인질로 잡고 있는 비극의 씨앗으로, 그 암울한 묵시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

KINS 책임연구원

1) 실제 냉전 시대에 핵전이 발발할 상황이 있었으니 그것이 1962년의 쿠바 사태였다.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비상한 용기로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서 그 상황을 돌파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